

2022 May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 목차

---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

# 금리

## 4월 동향

국내 3월 소비자물가가 4.1%로 나온 가운데 한은 금리인상 단행과 연준의 5, 6월 빅스텝 금리인상 전망이 크게 확대되며 국내외 국채금리의 상승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

3월 연준의사록의 양적 긴축 시사 및 대내적 소비자물가 급등 영향 등에 따른 한은 매파기조 전망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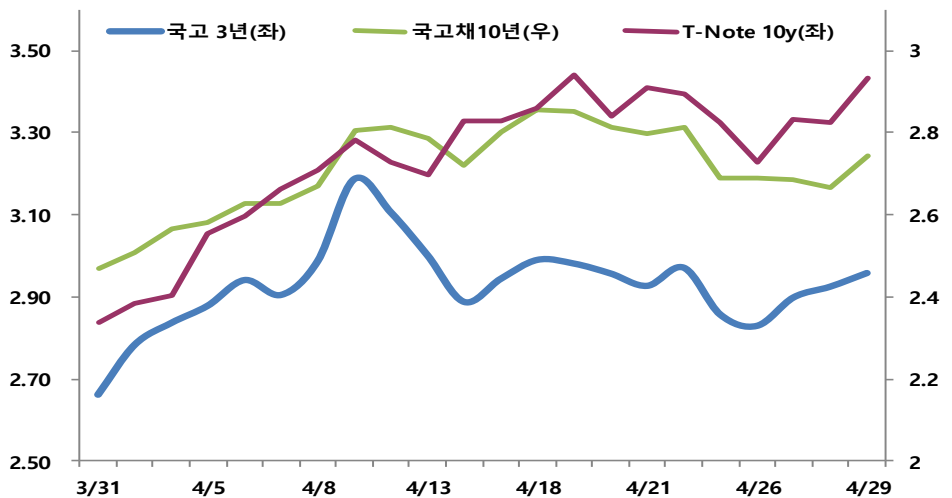
3월 미CPI 급등에도 정점 도달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5월 FOMC에서의 50bp금리인상 공식화에 대한 연준 의장 발언 등으로 상승

미 1분기 역성장 등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낳으며 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했으나, 5월 FOMC 경계감 확대 등으로 상승 마감

- 4월 초, 국내 소비자물가 4.1% 발표 후, 한은에 대한 긴축 행보 전망과 3월 연준의사록의 조기 양적 긴축 시사 등으로 전구간 금리 상승 흐름 출발하는 모습
  - 월 초, 3월 국내 CPI가 전년동기비 4.1% 상승함에 따른 한은의 글로벌 통화정책 동조 움직임 가능성이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며 출발했으나, 한은 장기 국고채 단순 매입 등이 상단 제한
  - 이어 대내적 추경 이슈와 연준 3월 의사록에서의 조기 양적 긴축 등에 대한 언급 확인 이후 장기 구간으로 급등세 나타나며 금리 커브가 가팔라지는 양상
- 중반, 미 3월 CPI가 8.5% 급등에도 정점 도달 가능성으로 일시 하락했으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IMF에서 연준 의장의 50bp 인상 공식화 언급 등으로 상승 흐름 이어지는 형국
  - 중반, 미 3월 CPI의 급등이 이어졌으나 인플레이 정점 도달 가능성 인식 등으로 일시 하락 전환 후, 금통위에서의 물가 대응과 금융 불균형 고려한 금리 인상 결정에 상승 재전환하는 모습
  - 이어 한은 총재의 인사청문 언급이 다소 중립적으로 인식된 측면이 반영되다, IMF에서 파월 의장의 5월 50bp 금리인상 공식화 언급 등으로 미 국채금리의 상승에 국고채 금리도 연동하며 상승 지속
- 후반, 국제유가 100달러 하회 등이 인플레이 정점 논란을 야기하며 국고채금리 하락 전환에 영향 미쳤으나, 5월 FOMC에서의 빅스텝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 확대되며 상승 추세 마감
  - 후반, 국제유가 하락과 3월 인플레이 정점 논란 이슈 속에 미 1분기 -1.4%의 역성장 소식 등이 금리 상단을 다소 제한하는 양상
  - 그러나 5월 이후로도 빅스텝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연이어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FOMC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며 상승 전환하며 마감

### 주요 시장금리 추이

4월 평균  
국고채(3년): 2.94%  
T-Note(10년): 2.74%



자료: 하나은행. 단위 %

## 5 월 전망

**연준의 빅스텝 인상 후 추가 인상 여파가 주요 금리 상승 동인으로 예상. 여기에 한은도 물가 대응이 최우선 정책 순위인 점에서 조기 인상 가능성이 예상되는 점도 국고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

평균	1Q22	2Q22	3Q22	4Q22
국고채(3y, %)	2.23	3.0 <sup>(F)</sup>	3.2 <sup>(F)</sup>	3.1 <sup>(F)</sup>

연준 5월 빅스텝 이후로도 2-3회 추가 빅스텝 가능성이 금리 상승 요인. 다만, 미 1분기 역성장, 유로경기 불확실성과 기대인플레이션 점검에 대한 시차 등을 고려할 때 금리 발작 수준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

국내적 물가 고공 상승세 지속과 양호한 1분기 성장 흐름 등에 따른 한은 추가 조기 긴축 기조와 추경 이슈 등이 대내적 금리 상승 요인

5월 국고채(3Y) 금리는 2.95%-3.25% 예상

- 연준의 5월 빅스텝 이후 2회 이상의 추가 50bp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 점증. 다만, 인플레이션 점진 논란과 1분기 역성장 고려가 이후 통화정책에 반영될 여지에 따른 점 등이 금리 상승탄력을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
  - 연준의 5월 빅스텝 금리인상 이후 6월 이후로도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이 결과가 미 국채금리 상승 동인으로 작용할 가운데 국고채금리도 동 영향 반영 등으로 상승세 다소 이어질 전망
  - 다만, 가파른 인상 기조에 따른 미 성장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금리 커브의 평탄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시차를 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가능성 등이 금리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소비자물가가 3, 4월 4.1%, 4.8%로 급등세 보인 가운데 한은의 물가안정 기조 중시와 내외금리차 불균형을 고려한 정책 가능성이 추가적인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이 국고채 금리 상단을 점진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
  - 국내 1분기 성장률이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 여기에 3, 4월 물가 상승률이 4.1%, 4.8%로 연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측면이 한은의 조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연준의 강한 긴축에 따른 내외 금리차 확대에 대한 한은의 대응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과 새행 정부의 추경확대 이슈 등이 국채시장 공급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도 금리 상단을 높일 전망
- 대외적으로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수요 부진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경기 둔화와 미국의 1분기 역성장 흐름이 글로벌 경기의 잠재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안전자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금리 상단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통한 글로벌 수요 부진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 여기에 미 금리인상 빅스텝 이후 인플레이션 점진 논의 재점화 가능성은 금리 상단 제한 요인으로 판단
  - 여기에 중국 코로나 관련 도시 봉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점증과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역성장세를 보이며 성장 동력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기 이슈와 함께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준의 6월 후로도의 빅스텝 인상 시사</li> <li>· 연준 정책 고려 속 높은 물가 상승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한 한은 매파 가능성</li> <li>· 신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 관련 이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1분기 역성장에 따른 경기불확실성</li> <li>· 유로존,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점증</li> </ul>

자료: 하나은행

# 달러/원 환율

## 4 월 동향

연준의 5월 빅스텝 금리인상과 QT 언급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 속 전쟁 여파에 따른 유로 및 코로나 관련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엔화의 달러 강세 탄력 강화 요인 등으로 환율은 1,270원대 상향

연준 3월 의사록의 매파성향 강화 및 외국인 역송금 등으로 1,220원대 상승. 반면, 외환당국 개입 등이 상단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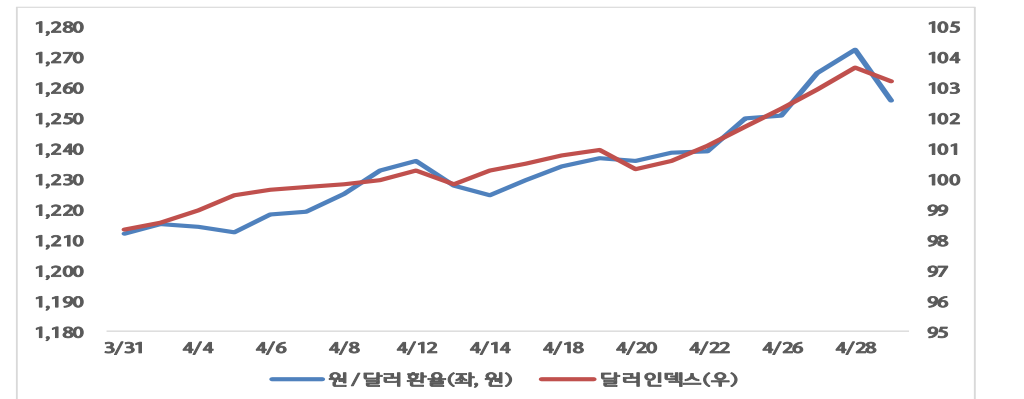
중국 도시 봉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속 엔화의 차별화된 통화정책에 의한 약세 기조 강화에 달러강세 탄력받는 형국

연준 5월 이후 두번의 확정적 빅스텝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경기 둔화 및 전쟁 여파에 따른 유로존 경기 급랭 가능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확대되며 1,270원대까지 급등

- 월초, 연준 3월 의사록에서 금리인상 폭 확대 및 QT에 대한 구체적 논의 소식 속 매파적 연준 위원들 언급을 반영하며 1,220원대 상승. 이에 외환당국 경계감 강화 등이 환율 상단 제한
  - 월초, 연준의 3월 의사록에서 50bp 금리인상 폭 확대 및 QT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다는 공개에 대해 보다 연준 스탠스가 매파적일 것이라는 우려에 달러화의 강한 강세가 나타난 형국
  - 이어, 연준 위원들도 전원 매파 성향 전환 등으로 미 국채 금리 상승 속 달러 강세 견인 국면 지속. 다만, 외환당국의 환율 1,250원대 근접 우려에 대한 강한 경계감 등이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
- 월 중반, 미 CPI의 정점에 대한 이슈가 일시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여전히 인플레이 압력 지속된 가운데 중국 도시 봉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IMF 패널 토론에서 연준 의장의 50bp 인상의 확정적 언급 등으로 1,240원대 근접
  - 중반, 3월 미 근원CPI가 시장 예상을 다소 하회한 측면이 인플레이 정점 논란을 야기하며 일시 달러 약세를 견인
  - 그러나 이후, 미 국채금리 상승세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도시봉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IMF 회의에서 연준의장의 확정적 5월 50bp인상 발언 등으로 환율은 1,240원대에 근접
- 후반, 연준의 5,6월 빅스텝 금리인상 기조,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중단 등이 유로존 경기 불확실성을 증대하며 환율은 1,270원 상향. 이후 미 1분기 역성장 결과와 국제유가 하락 등이 달러 약세 견인하며 1,250원대로의 하락 추세 전환 속 마감
  - 후반, 연준의 5월과 6월 연이은 매파적 빅스텝 금리인상 기조 유지 속, 러시아의 유럽 가스 수출 중단 조치 등에 따른 유로경기 불확실성에 의한 유로 약세가 달러 강세 추가 지지하며 1,270원대 진입
  - 이후, 미국의 1분기 성장지표가 -1.4% 역성장 결과를 보인 가운데 국제 유가 하락 소식 등이 인플레이 급등을 다소 완화 시킴에 따라 1,250원대 중반 흐름 보이며 마감

4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35.1  
4월말 달러/원 환율 : 1,255.9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지수 추이



자료: 하나은행

## 5 월 전망

5월 FOMC가 시장 예상에 부합했음에도 추가 빅스텝에 따른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 속 주요국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 확대된 측면 등이 환율 상단 높일 전망

평균	1Q22	2Q22	3Q22	4Q22
달러/원 환율(원)	1,205.7	1,245 <sup>(F)</sup>	1,225 <sup>(F)</sup>	1,200 <sup>(F)</sup>

5월 FOMC 결과가 향후 자이언트 스텝 배제 속 시장 예상에 부합한 측면이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될 전망

- 연준 5월 빅스텝 인상 이후 추가 인상에 대한 정보가 시장 예상에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상당부분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된 점이 달러 약세 견인하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에 긴축정보가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차가 걸릴 전망에 1,250원 전후 흐름 이어질 전망
  - 연준 5월 금리인상이 '빅스텝'에 머물며 75bp 금리인상에 대해 다소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측면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다소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된 점이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하지만, 6월부터 양적 긴축 시작과 6월 이후 빅스텝 경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경기의 경착륙 우려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 다소 시차가 소요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경계감 확대 등은 여전히 시장 변동성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게 할 것으로 전망

연준 빅스텝 긴축, 대내적 높은 물가상승 추세 등에 따른 한은의 조기 추가 긴축 가능성 등이 대외 요인에 의한 원화 약세를 다소 제한할 전망

- 1분기 국내 성장이 예상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3, 4월 높은 물가 상승에 대응한 한은의 조기 추가 긴축 가능성 등이 대외적 연준 긴축에 의한 달러 강세를 제한할 전망
  - 대내적으로 국내 1분기 성장률이 0.7%로 나온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입에 따른 높은 물가 상승 추세가 한은의 조기 추가 금리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5월 FOMC가 다소 비둘기적으로 인식되었음에도 추가 빅스텝 경로 힛수가 6월 이후로 이어질 가능성에 따른 한은의 매파적 성향 자극 요인 등은 상대적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원화 약세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5월 달러/원 환율  
1,240 ~ 1,270원 변동 예상

- 대외적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로존 및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안전자산선호 강화에 대한 내재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유로, 엔, 위안화 등 주요 통화의 약세 기조도 달러 강세에 탄력을 강화하며 1,250원대 이상에서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유로존 경기 불확실성과 중국 도시봉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의 내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이에 따른 유로, 위안화 약세 및 특히, 차별화된 엔화의 강한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양상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원화 약세를 당분간 견인할 전망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준의 6월 이후로도 빅스텝에 대한 스탠스 및 양적 긴축의 매파 성향</li> <li>· 유로존, 중국 경기 불확실성</li> <li>· 엔화 약세 등 주요 통화 달러 대비 약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부 도비쉬했음에도 연준 추가 긴축에 대한 한은의 선제적 대응 가능성</li> </ul>

자료: 하나은행

# 이종통화

## 엔/원 전망

4월 달러/엔 평균환율 : 126.4  
4월 엔/원 평균환율 : 977.1

5월 엔/원 예상범위 : 950-985

**연준 빅스텝 긴축과 이에 상반된 BOJ 초완화적 기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체질 약화 반영 등으로 약세 예상. 연준 긴축으로 원화도 약세 예상되나 엔화 대비 상대적 강세 흐름 속 소폭 하락 전망**

- (동향) 미 고용지표의 시장 예상 하회에도 연준의 매파 스탠스, 금리차 확대 등으로 엔화 약세 출발. 중반, 미 3월 CPI 8.5% 급등과 일본의 통화완화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125엔 상향 후, 일본 당국의 구두 개입 등으로 일시 강세. 후반 들어, 파월 의장의 IMF에서의 빅스텝 시사, BOJ 초 완화정책 고수 의지 및 러시아의 유로존 가스공급 중단 등으로 130엔 상향. 엔/원은 BOJ의 강한 완화 정책 등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를 압도하며 970원대 흐름
- (엔/원 전망) 대외적 연준의 매파 성향에 따른 강달러 반영 속 BOJ의 초완화 고수 정책에 따른 정책 차별화 요인에 의해 엔화 약세는 점진적으로 다소 이어질 전망. 엔/원 환율은 달러 강세에 의한 원, 엔 모두 약세이나 경제 체질과 매파적 금통위 요인 등으로 원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에 950원대를 하단으로 소폭 하락 예상
  - 미국과 확연한 통화정책 차별화 요인에 따른 BOJ 초완화 고수 정책이 중단기적으로 엔화 약세 압력을 높이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이에 엔화는 점진적 135엔대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판단
  -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요인 강화 속에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 부진도 일본 경제 체질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국면 속 엔 약세를 가중할 요인. 다만 엔 약세 강화에 따른 시장 왜곡 우려 등을 고려한 BOJ 개입 경계감 등이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유로/원 전망

4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801  
4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3.8

5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25~1,350

**미국보다 더딘 긴축 흐름에 따른 ECB의 완화적 기조 속 전쟁 영향에 의한 경기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약세 예상. 유로/원은 원화도 미 긴축에 의한 달러 강세 영향 반영되겠지만 유로 대비 상대적 강세 예상**

- (동향)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결렬과 연준의 매파 행보 강화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가 유로존 경기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 지속. 중반 프랑스 대선 기대가 일시 강세 영향을 미쳤으나, 다소 비둘기적이었던 ECB 정책 이후 재차 약세. 여기에는 나쁘진 않은 독일 경제 흐름에 따른 분트채 상승도 영향. 후반 들어, IMF에서 파월의장 빅스텝 시사와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 중단, 미 PCE 급등 등으로 약세 흐름 속 마감
- (유로/원 전망) 연준 매파 성향은 6월까지 빅스텝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등이 유로존 경제 불확실성을 잇따라 높이며 약세 흐름 예상. 여기에 경기 상황 고려한 다소 지체된 ECB 통화정책도 약세 요인이거나 레벨 부담 및 기술적 되돌림 가능성 등이 1.05 수준에서 하단 제한할 전망
  - 연준의 연속적 빅스텝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하며 유로도 이에 약세 다소 이어질 전망.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이슈 등도 유로존 경기 불확실성을 키우며 약세 탄력을 높이겠지만, 미 1분기 역성장에 따른 연준의 다소 매파성향 완화 가능성 등이 유로 하단 지지할 요인. 유로/원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에 영향이 유로 약세를 상대적으로 견인할 전망에서 소폭 하락 예상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2년 5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1</b>	<b>2</b>	<b>3 RBA 통화정책회의</b>	<b>4 美 FOMC</b>	<b>5 휴장(어린이날) BOE 통화정책회의</b>	<b>6</b>	<b>7</b>
<p>*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A]-예고치, ()안은 이전치</p>	<p>한 4월 수출/수입(18.2%/27.9%, YoY) 4월 무역수지(-\$140M) 미 3월 건설지출(0.5%, MoM) 4월 ISM 제조업지수(57.1)/ISM 고용(56.3) 4월 ISM New Orders(53.8) 일 4월 지분 은행 PMI 제조업[F](53.4) 4월 소비자자기대지수(32.8)</p>	<p>한 4월 외환보유고(\$457.81b) 미 3월 제조업수주(-0.5%) / 내구재주문 3월 PPI(1.1% MoM, 31.4% YoY) 3월 실업률(6.8%) <b>오 5월 RBA 기준금리(0.10%)</b></p>	<p>미 FOMC 금리 결정(0.25% ~ 0.50%) 5월 미 연준 준비금잔고 금리(0.40%) 4월 ISM 서비스지수(58.3) 3월 무역수지(-\$89.2b) 유 3월 소매판매(0.3% MoM, 5.0%, YoY) 독 3월 수출/수입(6.4%/4.5%, MoM) <b>Fed Chair Holds Press Conference Following FOMC Meeting</b></p>	<p>중 4월 Caixin 중합 PMI(43.9)/서비스 PMI(42) 독 3월 공장수주(-2.2% MoM, 2.9% YoY) <b>영 5월 영란은행 기준금리(0.75%)</b></p>	<p>한 4월 CPI(0.7% MoM, 4.1% YoY) 미 4월 시간당 평균 임금(0.4% MoM, 5.6% YoY) 4월 경제활동참가율(62.4%) 3월 소비자신용지수(\$41.820b) 일 4월 도쿄 CPI(1.3% YoY) 중 4월 외환보유고(\$3187.99b) 독 3월 산업생산(0.2% MoM, 3.2% YoY)</p>	
<b>8</b>	<b>9</b>	<b>10</b>	<b>11</b>	<b>12</b>	<b>13</b>	<b>14</b>
	<p>미 3월 도매무역 판매(1.7%, MoM) 유 5월 섀틱스 투자자기대지수(-18) 일 3월 노동자 현금수입(1.2%, YoY) 3월 실질 임금증대(0.0%, YoY) 중 4월 신규 위안화 대출 CNY(3130.0b) 4월 통화공급 M0(9.9%, YoY) 4월 통화공급 M1(4.7%, YoY) 4월 통화공급 M2(9.7%, YoY) 4월 수출(14.7% YoY) / 수입(-0.1% YoY)</p>	<p>한 3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4월 NRB 소기업 낙관지수(93.2) 유 5월 ZEW 서베이 예상(-43) 일 3월 가계 소비지출(1.1%, YoY) 독 5월 ZEW 서베이 예상(-41.0)</p>	<p>한 4월 실업률(2.7%) 미 4월 CPI(1.2% MoM, 8.5% YoY) 4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2.7%, YoY) 4월 주간 평균 실질 소득(-3.6%, YoY) 중 4월 PPI(8.3% YoY) / CPI(1.5% YoY) 독 4월 도매물가지수(6.9% MoM, 22.2% YoY)</p>	<p>한 3월 통화공급 L(0.5%, MoM) 3월 통화공급 M2(0.6%, MoM) 미 4월 실질 재정수지(-\$192.7b) 4월 PPI(1.4% MoM, 11.2% YoY) 일 4월 도쿄 평균 사무실 공실률(6.37) 4월 파산(-6.46% YoY)</p>	<p>한 4월 수출물가지수(5.7% MoM, 22.8% YoY) 4월 수입물가지수(7.3% MoM, 35.5% YoY) 미 4월 수출물가지수(4.5% MoM, 18.8% YoY) 4월 수입물가지수(2.6% MoM, 12.5% YoY) 5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현황 5월 미시간대 소비자지대, 1년 인플레이션 유 3월 산업생산(0.7% MoM, 2.0% YoY) 일 4월 통화량 M2(3.5%, YoY), M3(3.1%, YoY)</p>	
<b>15</b>	<b>16</b>	<b>17</b>	<b>18</b>	<b>19</b>	<b>20</b>	<b>21</b>
	<p>일 4월 PPI(0.8% MoM, 9.5% YoY) 4월 전국 백화점 판매(4.6% YoY) 4월 도쿄 백화점 판매(11.3% YoY) 4월 공작기계 수출(30.0%, YoY) 중 4월 광공업생산(5.0% MoM) 4월 소매판매(-3.5% YoY)</p> <p>EU Commission Economic Forecasts</p>	<p>미 4월 소매판매(0.5% MoM) 3월 기업채고(1.5%) 4월 광공업생산(0.9% MoM) 4월 설비가동률(78.3%) 4월 제조업(SIC) 생산(0.9%) 일 3월 3차산업지수</p>	<p>미 4월 주택착공건수(0.3% MoM) 4월 건축허가(0.4% MoM) 유 4월 EU27 신규 차량등록(-20.5%) 일 3월 설비가동률(1.5% MoM)</p>	<p>미 4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17.6) 4월 기준주택매매(-2.7%, MoM) 4월 섀행지수(0.3%) 유 3월 건설생산(1.9% MoM, 9.4% YoY) 일 3월 맥심기계 수주(-9.8% MoM, 4.3% YoY) 4월 수출(14.7% YoY) / 수입(31.2% YoY) 중 4월 SWIFT CNY 국제결제비중(2.20%)</p> <p>ECB Publishes Account of April Policy Meeting</p>	<p>한 4월 PPI(8.8% YoY) 5월 수출 20일(16.9% YoY) 5월 수입 20일(25.5% YoY) 유 5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일 4월 전국 CPI(1.2% YoY)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3.70%) 5년 위안화 대출금리(4.60%) 독 4월 PPI(4.9% MoM, 30.9% YoY)</p>	
<b>22</b>	<b>23</b>	<b>24</b>	<b>25</b>	<b>26 韓 금통위, FOMC 회의록</b>	<b>27</b>	<b>28</b>
	<p>독 5월 IFO 기업환경지수(91.8)</p>	<p>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103.2) 미 4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0.44) 4월 신규주택매매 4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p>	<p>한 4월 소매판매(4.7% YoY) 4월 백화점 매출 / 할인점 매출 6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 비제조업 1Q 단기 대외채무(\$166.2b) 독 6월 GfK 소비자 기대지수</p> <p>OECD Publishes Economic Outlook</p>	<p>한 5월 BoK 7일 Repo 금리(1.50%) 미 5월 FOMC 회의록 공개 4월 미결주택매매 1Q GDP 물가지수 / GDP 연간화 QoQ 1Q 개인소비 일 4월 PPI 서비스(1.3% YoY)</p>	<p>미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현황 4월 미시간대 소비자지대, 1년 인플레이션 4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3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실질 개인소비 3월 PCE 디플레이터 일 5월 도쿄 CPI 중 4월 산업생산</p>	
<b>29</b>	<b>30</b>	<b>31</b>				
	<p>유 5월 경기/산업/서비스/소비자 기대지수 4월 M3 통화공급</p>	<p>미 5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1.1)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5월 MNI 시카고 PMI 1Q 주택가격구매지수(3.3% QoQ) 일 4월 실업률(2.6%) 4월 유효구인배율(1.22) 4월 소매판매 중 5월 중합/제조업/서비스제조업 PMI</p>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hana.com>)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